

합동응원전 사건에 대한 사과 요청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입니다.

지난 3월 23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진행된 합동응원전에서 고려대 응원단 측이 연세대의 응원가를 이용하여 "연세대 여자들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서 흔들흔들하다가 One Night Only하는 거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연세대 학우들 역시 심한 불쾌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연세 여학우 전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공개적으로 비하한 성희롱적 발언이며, 연세 여학우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캠퍼스 내 성문화 및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여전히 이러한 성희롱적 발언과 태도가 공식석상에서 비춰진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양 교 및 응원단의 명예를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건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즐겁고 건전한 응원 문화로 더 좋은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양 교 응원단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성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일은 오히려 응원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며 응원 문화가 존재하는 의의마저 퇴색시키고 말 것입니다.

고려대 응원단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불쾌감을 느낀 연세 학우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주십시오. 또, 학우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입장으로써, 앞으로 양 교 응원단은 응원 시에 더욱 성숙한 태도로 임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시오.

사과의 방법은 공식적인 사과문을 작성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메일(yonseihotalk@yonsei.ac.kr)로 보내시면 자보 및 학내 신문을 통해 학우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응원전 사건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입니다.

지난 3월 23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진행된 합동응원전에서 고려대 응원단 측이 연세대의 응원가를 이용하여 "연세대 여자들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서 흔들흔들하다가 One Night Only하는 거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연세대 학우들 역시 심한 불쾌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연세 여학우 전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공개적으로 비하한 성희롱적 발언이었으며, 연세 여학우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성문화 및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여전히 이러한 성희롱적 발언과 태도가 공식석상에서 비춰진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양 교 및 응원단의 명예를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건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즐겁고 건전한 응원 문화로 더 좋은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양 교 응원단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성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일은 오히려 응원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며 응원 문화가 존재하는 의의마저 퇴색시키고 말 것입니다.

고려대 응원단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불쾌감을 느낀 연세 학우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주십시오. 또, 학우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입장으로써, 앞으로 양 교 응원단은 응원 시에 더욱 성숙한 태도로 임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시오.

사과의 방법은 공식적인 사과문을 작성해주셔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총여학생회 메일(yonseihotalk@yonsei.ac.kr)로 보내주시면 자보 및 학내 신문을 통해 학우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